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행복해서
웃는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행복
하는
주체적인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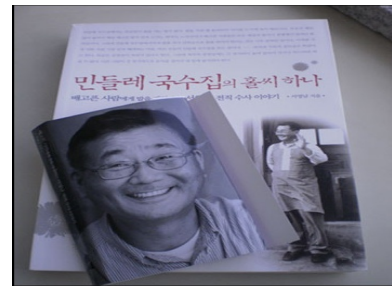
Column

행복, 마음먹기 달렸다



Interview

민들레국수집 아저씨, 서영남



▶ 지난호 보기

2011년 11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Zoom 人

IDI 소식



사회적 기업 전문가 포럼 개최
인천시는 오는 2014년까지 300개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6,000...



별(星) 볼 일 있게 해 준 천문학자지만, 별(別) 볼 일 없게 잊혀진 가난한 천재, 김 영
흔히들 실력을 인정 못 받은 불운한 이들에게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천재...

Zoom INcheon



그곳에 옛정이 있다_ 애보 박물관
애보박물관. 남동구 운연동 상아산 자락입니다. 인천대공원과 이웃이죠. ...

도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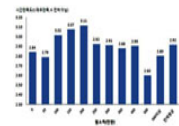
부탄왕국의 행복정책
티베트, 인도, 뽕갈과 이웃하고 있으며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내륙 ...

IDI 연구

연구 주제	연구 결과	
	연구 내용	연구 결과
행복정책 연구	경제학에서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전제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설령력이 ...	

행복정책 연구
경제학에서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전제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설령력이 ...

인천지표



인천시민들의 소득별 시간부족과 만족도 실태 분석
현대인은 바쁘다. 직장일, 집안일, 자녀돌보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있...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1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권북기 한겨레신문 디지털콘텐츠 국장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사람뿐이 아닙니다.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세포도 자신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피하고, 이로운 쪽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질적 부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실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이들은 가난한 나라 부탄이나 뉴질랜드 옆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세계 주요 30개국 가운데 25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 하위권에 속해있습니다.

부탄과 바누아투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점은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 합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결과이겠지요.

우리도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을 보자면 '곰적하게' 몸을 챙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기농산물을 먹고 몸에 좋다는 것을 찾아다니며 먹습니다. 하루에 한 두 시간씩 시간을 내 운동을 하고 주말이면 산을 찾습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가운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불행한 마음이 오래가면 몸의 건강도 나빠집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로우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탄이나 바누아투 사람들은 큰 욕심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의식주만 해결할 수 있으면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으리으리한 집이나 고급 승용차를 마련하기 위해 피땀 흘려 돈을 벌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이 쓴 글이 떠오릅니다.

작은 항구 도시에 여행 온 사업가가 보트에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는 어부를 깨워 하루에 몇 번이나 고기를 잡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번만 잡고 이렇게 쉰다는 말에 그 사업가는 두 번 이상 하면 몇 배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으며, 2년 뒤에는 모터보트를 살 수 있고, 3~4년 뒤에는 두 세 척의 보트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냉동 창고, 훈제 생선공장, 고기 때를 찾는 헬리콥터를 살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묻는 어부에게 그 사업가는 그런 다음에는 항구에 편안하게 앉아 햇살 아래 달콤한 낮잠을 즐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부가 되물습니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어부처럼 살 수 없고, 우리가 사는 곳도 부탄이나 바누아투가 아닙니다. 2011년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그에 따라 삶이 주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곳입니다. 입시 지옥을 거친 뒤 도착한 대학에는 스펙 경쟁이 기다라고 있고, 밤낮없이 공부를 해도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결혼과 주택 마련도 힘에 겹칩니다.

그런 삶의 힘겨움은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를 극대화시킵니다.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한 마음 돌리면 지옥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지만 그렇게 마음을 마음먹은 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주체라고 말은 하면서도 늘 주위 사람에 끌려 다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좋아하고, 비난하면 속상해 합니다. 그렇게 살면 나의 행복도 다른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신은 전부이며, 우주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인정해주겠습니까? 이어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입니다. 잘못도 했고, 실수도 했지만 그것은 지난 일일 뿐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 하늘을 한 번 쳐다보세요. 구름이 흘러가듯 이 일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우리 삶에는 또다시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역지사지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보십시오. 교회나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려면 그리스도를 믿음이 ‘그럴수도’를 믿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기며 이해해 보십시오. 그 사람 또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 본래의 착한 심성이 나빠졌다고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위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 집니다. 행복감이 솟아 오릅니다. 안심입명(安心立命)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면 몸의 건강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보세요. 긍정은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일화를 들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인데요. 시댁이나 친정 모두 가난해서 이 분이 번 돈으로 뒷받침을 해야 했습니다. 늘 빚을 지고 살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피곤해서 짜증이 났고, 손님이 적으면 빚을 못 갚을까 걱정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덜컥 압에 걸리고 말았지요. 압은 그 분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법을 익히게 됐습니다. 지금 그 분은 손님이 많은 날은 돈을 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손님이 없는 날은 쉴 수 있어서 좋다고 여깁니다. 실제 손님이 없는 날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 놓고 맛있는 차와 과일 빵 등을 차려

놓고 자신이 손님이 되어 그 순간을 즐깁니다. 삶의 행복을 찾은 것이지요. 병? 물론 다 나았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사람뿐이 아닙니다.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세포도 자신에 해를 끼치는 물질을 피하고, 이로운 쪽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물질적 부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실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이들은 가난한 나라 부탄이나 뉴질랜드 옆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세계 주요 30개국 가운데 25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민들레국수집 아저씨, 서영남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1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민들레국수집 아저씨, 서영남

“이웃을 찾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성공한 사람과 노숙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 똑 같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노숙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만 챙기거든요. 가족, 친척, 있으나마나지요.”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하고 챙겨 줄 때 나의 행복이 가능해짐을 삶속에서 보여주는 ‘아저씨’가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관문이라는 서울역에서 그들을 쫓아낼 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그들에게 밥을 주지 않을 때, 그런 세상에서 그들을 VIP손님으로 모시는 밥집이 있다.

민들레국수집. 인천시 동구 화수동 286-63. [예수께서도 노숙인이셨다.]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치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눈치밥은 살로 안 가는 법이죠.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무시당하는 걸 참지 못하거든요.” 예전에 어머니들은 거지에게 밥을 줄 때도 이것저것 챙겨주었다. 그게 거지보다 앞서는 인간에 대한 예의였다고 한다. 노숙자는 사회적 산물이며, 선진국일수록 노숙자가 많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들이 팩트임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다. 자본주의 심장인 미국의 월가에서, 유럽에서, 일본에서 99%가 꿈을거리고 있다. 남을 내쳐야 내가 살아야 하는 무한 경쟁, 승자독식, 패자족박의 세상은 더 이상 힘들겠다고, 알아보겠다고 한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길은 벌써부터 우리 곁에 있어왔다. 행복은 지식이 쌓이고 돈이 불어나고 먹을 것이 하나 더 생긴다고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실감하고 있다. BBC는 세계 12대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이 매일 40명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며 신기해한다. ‘돈과 성공에 목매는 끝없는 압박’ 때문이라는 진단이 따라붙는다.

장자와 노자, 불법의 불이(不二)사상, 예수의 원수를 사랑하라 등등, 세상의 지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종결되었다고 단정하고픈 심경이다. 산다는 건 결국 사람이다. 사람은 관계이다. 관계는 내가 아닌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쟁취가 아닌 나눔이다. 함께하는 행복이다.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안 받고, 생색내는 기업이나 부자들의 후원만 사양합니다. 선한개인들의 자발적 나눔이 궁극적으로 행복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이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때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비결은, 스스로 살려고 마음먹을 때 살짝 끼어드는 것이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가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책읽기이다. ‘민들레회망지원센터’는 VIP손님들에게 마음의 밥을 주려고 2009년 만들어졌다.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노숙자들이 드물다고 했다. 세상을 살아가는 씨앗이 뿌려지는 때가

어딘 사실감은 약세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어딘 사실을 줄행하게 모넨 사람은 소미 사망, 권덕복, 경쟁의식이 높다. 보상심리가 작동하는 것이다.

국수집에서 날리는 훌씨가 '민들레 곰 공부방', '민들레 곰 어린이 밥집', '민들레 가게'로 퍼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모처럼 세상의 순리를 본다. 세상 밖으로 나가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민들레 가족'들이 모여 사는 방들도 여기저기 있다. 화수동 200번지 일대는 '민들레 행복타운'이다.

인터뷰가 끝나고 인사를 하려는데 동네 아주머니가 국수집
김장하는 날짜를 묻는다. "날짜가 겹치면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작은 훌씨를 보는 순간이다. '민들레'는 사회적
자산이다. 행복인프라이다. 이 훌씨들을 퍼뜨리고 키우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

유난히 따스한 햇볕을 쬌리며 그가 쓴 책을 읽고 싶다.
[민들레 국수집의 훌씨 하나].



■ 대담/기록 : 조 승 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이웃을 찾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성공한 사람과 노숙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방식이
이 똑 같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노숙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만 챙기거든요. 가족, 친척, 있으나마나지요.”

사회적 기업 전문가 포럼 개최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1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 사회적 기업 전문가 포럼 개최



인천시는 오는 2014년까지 300개의 사회적 기업 육성 및 6,000명의 고용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인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위원회'를 설립,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인천지역의 사회적 기업 현황과 여건을 파악하고, 보다 내실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우리연구원과 경인일보 공동주최로 전문가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의회 의원, 학계, 지원기관, 기업가, 우리 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형 사회적 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권형 연구위원이 '인천 사회적기업의 현황'에 대해, 최중윤 인천시 일자리창출과장이 인천시 사회적기업 정책현황을 각각 설명했다. 이어서 양준호 인천대 교수가 인천지역 사회적 기업 정책과제에 대한 기초발표를 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을 가졌다.

■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정책토론회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조화를 위하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 인천의제21 실천협의회(상임회장 서주원)와 공동으로 지난 11월 11일, 송도 미추홀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박연희 센터장이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정책동향"이란 주제발표에 이어, 우리 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의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인하대학교 변병설 교수의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서주원 상임회장을 좌장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이한구 시의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오수길 교수, 인사이드 인천 송정로 대표이사,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박홍렬 사무처장 등이 참석,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여건변화와 인천지역 추진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원동력 확보 및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현안간담회 개최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별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1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를 시작으로, 9일, 기획행정위원회, 11일, 문화복지위원회, 15일, 산업위원회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연구원 관련 연구자 및 시의회 상임위원회별 관계자들과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 제안 및 연구결과에 대한 요청사항 등을 나누며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했다.



■ 한강하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1차 한강하구포럼 개최

한강하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1차 한강하구포럼이 지난 11월 16일, 인화대 제1회의실에서 우리 연구원과 인화대, 명지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강하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하구포럼의 역할"이란 주제로, <Session 1>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과제, <Session 2> 한강하구 통합관리와 하구포럼의 역할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중앙부처 소속지방관청 관련 공무원,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해당부서 담당자, 유관기관·시민 사회단체·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 포럼은 한강하구 관리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해결하는데 있어, 지역기반의 논의구조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한강하구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1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별(星) 불 일 있게 해 준 천문학자지만, 별(別) 불 일 없게 잊혀진 가난한 천재, 김 영

장순지_사무처

별 별 (別) (星) 불 불 일 일 없 있게 잊 해 쳐 준 진 천 문 가 학 자 지

흔히들 실력을 인정 못 받은 불운한 이들에게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천재란 말을 한다.

천문학자 김영 또한 그렇다. 그의 천재성도 제자인 홍길주의 문집을 통해 비로소 드러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고양된 문화 역량을 한눈에 보여주는 방대하고 호한한 저작으로, 도무지 무슨 소란지 모를 <하산살>, <하잡쇄보>, <효각연례> 등의 기하학 관련 저술을 남긴 홍길주는, 스승 김영의 일생을 간략히 정리한 <김영전>을 쓰고 있다.

그는 전기에서 “김영은 인천사람으로 신분이 미천하고, 용모가 피취하여 말도 어눌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하지만 역상산수 분야에서는 신수(神術)라 할만큼 독보적인 조예가 있었다. 그는 스승없이 <기하원본>을 독학해서 익힌 것이 고작이었으나, 이에 흥미를 느껴 향후 15~16년 간 침잠 몰두하여 마침내 남들이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 홍길주가 김영에게 보여 감수를 받으려 했던 <효각연례>의 일부분

김영의 재능을 처음 발견하고, 인정한 사람은 서호수였다. 당시 국가 천문대였던 관상감의 제가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그는 김영에 대한 전기를 남긴 서유본의 부친이기도 하며 산학으로 당대에 가장 이름이 높았다. 그는 김영의 얘기를 듣고 그를 불러 몇 마디 나눈 후에 당대 으뜸이라 자부하던 자신의 실력으로도 김영에 미칠 수 없음을 알았다. 이에 관상감의 책임자로 있던 훗날 김영의 제자가 될 홍길주의 조부 홍락성에게 김영을 추천하였고, 이렇게 김영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한편 서유본은 그의 전기에서 “~아버지는 알 수 없고, 조부 역시 알 수 없다. 대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가난해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이리 저리 떠돌다 서울로 왔다. 사람됨이 성글고 고집불통인데다 기질이 있었다. 키는 후리하게 크고, 얼굴은 아위었으나 두 눈동자는 반짝반짝 빛났다”고 했다. 또한 <이항견문록>에는 그가 젊은 시절, 산술에 통달하고도 근원의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겨 여러 해 고심전력하느라, 마침내 우물지질(우물증 증세를 앓아 여러 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고 있다. 그를 설명한 여러 저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영은 외롭고 비루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된 것은 우연히 익힌 기하학뿐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한가지에 몰두해 그 분야에 독보적인 조예를 지니게 되었으나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점점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 극심한 우울증까지 겪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일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 현릉원을 이장하는 의식에 정확한 시각을 측정하여 식을 문제없이 진행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관상감의 관원들로는 관측의기를 새로 제작하여 정밀한 측정값을 구하는 일이 불가능했다. 이에 관상감사 김익이 김영을 천거했다. 김영은 적도경위와 지평일구(평면형 해시계)의 의기를 제작했고 이와 함께 산법중성기와 누주동의를 편찬해 새로운 시각 측정의 방식을 마련했다. 결국 천역의 일은 김영 덕분에 정해진 시각에 무사히 의식을 치를 수 있었다.

김영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역관에 특채됐다. 당시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전문직 관청에 발탁된 예는 전무했던 터라 관상감의 관원들은 모두 김영을 시기하여 이 조치에 반발했다. 그렇지만



만, 천재, 김영

정조는 “김영과 같이 재주가 뛰어난 자는 ▲ 김영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해시계 지평일구 상례에 따를 수 없다”고 한 것 뿐 아니라

아예 관상감의 관원들을 그에게 배우게 하고 천체의 운행에 변동이 있을 때 상부에 보고하는 일도 김영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고는 위로 보고조차 못하게 했다. 이후 김영은 고위 관원은 아니었지만 여러 벼슬을 거치며 관직생활을 보냈고, 나라에 천문역상과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기면 어김없이 불려가 문제를 해결했다. 그의 능력은 다른 이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번번이 풀어냈고 계산은 역상서적의 오차까지 모두 잡아낼 정도로 정밀했다.

그러나 순탄해 보이던 그의 앞길도, 그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서호수와 정조가 세상을 뜬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김영 성격 자체가 아첨이나 아부를 하지 못할뿐더러 마땅히 청탁할 곳도 없어 벼슬에서 쫓겨나고 만 것. 그러나 나라에서는 그를 쫓아내고도 여전히 천문이나 역법의 문제가 생기면 번번히 그를 불러들였고 그때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관상감원들의 노골적인 행패는 심해졌고, 면전에서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일도 있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집단 따돌림, 왕따를 시킨 셈인데, 졸렬하고 못나빠진 관리들의 소행이 눈에 보이는 듯하여 불쾌해진다.

김영은 결국 더 이상 더러운 꼴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벼슬을 건어차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아이들 서당 선생을 하며 근근이 연명했다. 절망스러운 그를 버티게 한 학문은, 주역에까지 관심을 갖게 했다. 그래서 마흔이 넘은 나이에 장가를 가 자식도 있었지만 실림은 돌보지 않고 틀어박혀 주역에만 몰두했고, 나아가 음악, 서구과학에까지도 골몰했으며 서양의 발달된 측량법과 수학 등을 이 땅에 실용화시키려는 데 애를 썼고, 농사지을 때 물을 끌어올리는 수차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당연히 살림살이를 돌보거나 가족을 챙기는 일은 뒷전이였다. 이렇게 학문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관심이 없던 김영은 여러 연구 성과를 저서로 남기고자 온 힘을 기울였으나 탈고하지 못하고 굶어 죽고 말았다.

김영은 죽기 전에 어린 아들에게 자신의 난고를 서유본에게 전하라는 유언을 했지만, 서유본이 부고를 듣고 김영의 집에 사람을 보냈을 때는 이미 그의 책 상자는 관상감 생도에 의해 도둑맞은 뒤였다. 김영을 시기하고 모욕감을 주었지만 그의 연구물만은 노려왔던 것이다. 더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손에 들어가봤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들의 손에 들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조선의 후생을 위해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 없이 일생을 천문학에 바친 그가 별볼 일 없게 죽어가고, 그의 업적이 후대에도 조명받지 못한 채 묻혀진 것 -홍길주는 <김영전>에 “세상은 재주 있는 자를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토사구팽의 현실이, 가난한 천재, 김영을 만나고는 더 많이 아프다.



▶ 1395년에 제작된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 탁본

*본 글은 <<미쳐야 마른다>-정민 저, 푸른 역사>>를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임.
흔히들 실력을 인정 못 받은 불운한 이들에게 시대를 잘못 타고 난 천재란 말을 한다. 천문학자 김영 또한 그렇다.

그곳에 옛정이 있다_애보 박물관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1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글 조승헌 /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사진 최선주 /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봄바람에 날아간 옛정이 그랬다는 듯이 찬바람 부니 돌아오더라.

술잔을 기울이던 기자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로 신문사 생활부가 없어져 버렸다고 하네요.
여성, 가족, 문화가 한국 사회에서 존재감을 박탈당했다고 할 수 있죠.
어디 언론뿐이었겠습니까, 세상이 모두 경제경제경제로 차고 넘쳤죠.
급기야 신문에 명품담당전문기자가 생겨났다고 하지요.
명품생활부로 화려한 부활을 한 셈인가요?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을 사려는 대가자가 1000명이 넘고, 손목에 찬 시계로 비즈니스 파트너의 수준을 판단한다는 남자들, 명품구매매체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통계들을 뒤로 하면서 따뜻한 햇살을 찾아 나섰습니다. 애보박물관. 남동구 운현동 상아산 자락입니다. 인천대공원과 이웃이죠. 생활박물관이라 하고 싶군요. 구암 황형택 선생이 마음을 내어 만든 곳입니다. 다듬잇돌, 도자기, 금속, 자수, 목공예품 등 생활 소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술 빚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마음 가다듬기'라는 문구에 질박한 항아리와 딱딱한 다듬잇돌이 말랑말랑하고 푸근한 질감으로 다가옵니다. 조상들에게 생활은 곧 마음이었죠. 생활에서 마음을 붙여놓고자 나무와 돌을 다듬고 색을 입히고 기름을 배게 한 것이겠죠. 신언서판(身言書判), 인물을 평가할 때 용모, 말씨, 글씨, 판단력을 잴대로 한다는 것이죠.

집을 평가하는 기준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이야 평수와 학군? 인테리어와 가전제품? 한마디로 돈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돈에 따라 격이 결정되는 종속물이 되는 것이죠. 20평의 행복을 40평의 절반으로 치부하는 물신 페티시즘.

행여 그런 공기를 벗어나고 싶다면 여기로 오십시오. 장난감 같은 약연을 보시지요. 약연(藥?)은 약재를 가루로 빻거나 즙을 내는 기구입니다. 두 놈이 붙어있는 쌍약연에 마늘, 생강, 대추를 찢고 갈아 다려 마시면 몸살이 어디 붙어있을까요. 키보드 크기만 한 다듬잇돌을 보니 갑자기 편지를 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것이 언제이지요. 다음 달에 의사도 무인에 가며 하지를 사오겠다고 다짐합니다. 독

위에 누룩한 도련지를 펴놓고 미천굴, 구룡령에서 딴 꽃차를 한 모듬씩 갈무리하여 이분 저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물욕이 샘솟습니다. 돌절구, 다듬잇돌, 차 한 잔이면 호화 럭셔리 100평짜리 저리 가라입니다.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을 들리면 아이들의 세계입니다. "진화하는 로봇의 꿈"을 주제로 댄스 로봇 공연과 더불어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시되어 있지요. 마당 한편에는 체험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도자기·목공·민화·한지 만들기를 직접 해 볼 수 있는 체험장입니다. 지금 가시면 아기 손바닥만 한 메주들이 가지런히 마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조그만 병에 그 메주들로 간장을 담근다고 하네요.

아이들과 오셔도 좋습니다. 혼자 오시면 그대는 가을사람입니다. 카페에서 차 한 잔 가져와 산자락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는 것도 행복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손을 잡고 웃어대던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을과 추억과 옛정이 쌓이고 흐르는 곳, 생활속의 명품, 애보박물관입니다.



인천 토박이거나 미식가인 사람들은 익히 그 명성을 알고 있을, '이화참쌀순대'가 순대국의 고급화와 세계화 진출을 위해 '해늘'이라는 브랜드로 2007년, 새롭게 태어났다.

'해같이 밝고 늘 행복한 집'이란 뜻으로 '해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릴적부터 듣고 먹었던 '이화참쌀순대'라는 이름이 더 정겹고, 옛스러워서 맘에 든다. 그러나 주인장의 40년 전통을 100년의 전통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큰 포부가 느껴지는 브랜드만큼 아직 입에 붙진 않지만, 앞으로 '해늘'로 기억하자.

'해늘'은 40년 전통에 걸맞게 대한민국 1등 순대전문점을 표방하며, 용인 양재, 부천 등에 체인점을 열었다. 1987년 청와대 만찬 음식으로 선정된 바 있는 이력이 말해주듯 이집 순대는 국내산 찰쌀만 써서 각종 약재와 버무려 만든다. 그래서 더 찰지고 담백한 맛을 자랑한다.

고풍스런 외관에 편안한 인테리어를 갖춘 '해늘'. 평일 점심인데도 사람이 많다. 인천대공원을 찾은 사람이나 등산객들이 즐겨 찾아서 주말이면 기다려서 먹어야 하지만, 주차요원이 입구에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자리를 잡고, 순대국 따로 (7,000원)와 모듬 소(13,000원)를 주문했다. 순대국은 따로와 보통이 있는데, 말 그대로 따르는 공기밥이 따로 나오는 것이고, 보통은 순대국에 말아져 나오는 형태다. 이밖에도 순대전골, 수육보쌈, 술국 등의 메뉴가 있다.

여느 순대국집의 밀반찬과 다름없이 깍두기와 양파, 고추, 새우젓, 쌈장, 소금이 나오고, 여러 다양한 부위의 고기와 내장 등이 잘 손질돼서 찹쌀 순대와 함께 나오는 모듬 수육도 먹음직스럽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모듬 고기들을 취향대로 쌈장이나 소금에 찍어 먹거나 칼칼하고 시원한 보쌈 김치나 부추김치에 곁들여 싸먹으면 따뜻하고, 잡내없이 풀깃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아예서 나온 순대국. 양도 푸짐하고, 건더기도 많다. 건더기도 잡고기가 아닌 질 좋은 부위들의 고기로 가득하다. 국물맛이 진한데, 자극적이지 않고, 순하면서도 시원하다. 뒷맛도 텅텅하지 않고 깔끔하다. 한번에 확 끌어당기는 임팩트 있는 맛은 아니지만 두고두고 질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순박한 고향의 맛이다. 막걸리 한잔과 어울리는 든든한 한끼 식사에 영양도 듬뿍인 한국적인 대표 메뉴라고 할만하다.

뜨거운 식사를 끝내고 나오면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들고, 식당 밖 정원에서 흘러나오는 올드팝에 나도 모르게 흥얼대며 걷노라면, 여기저기에 살포트 내려앉은 가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해늘'이다.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만수6동 608-3

*전화번호 : 032)467-3050

글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사진 신선주(인천대 도시행정학과)

애보박물관, 남동구 운연동 상아산 자락입니다. 인천대공원과 이웃이죠. 생활박물관이라 하고 싶군요. 구암 황형택 선생이 마음을 내어 만든 곳입니다. 다듬잇돌, 도자기, 금속, 자수, 목공예품 등 생활 소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1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부탄왕국의 행복정책

부탄왕국의 행복정책

도시브랜드센터 김보경 전문연구원

97%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

1인당 소득은 2000달러지만 교육비, 의료비가 무료인 나라

국민총행복(GNH)이라는 개념을 만든 나라

티베트, 인도, 벵갈과 이웃하고 있으며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 부탄. 우리나라의 1/5크기이며,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고도 2,000m이상의 산악지대로 평야가 거의 없고 70만 인구의 80% 정도가 농경에 종사하고 있다. 티베트 문화권에 속해 최근까지 인도의 보호아래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작은 나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국민행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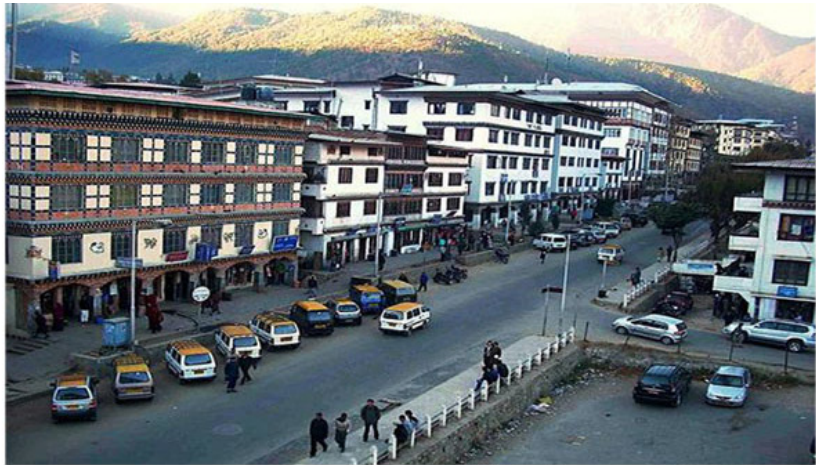
〈출처 : <http://blog.daum.net/yhk1973/17951933>〉

부탄의 3대 국왕(Jigme Dorji Wangchuck)은 1952년 국가 발전의 목표를 “국민들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는데 있다”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국정기조에 근거하여 부탄은 경제개발보다 사회나 문화를 강조하는 국가 운영 전략을 이끌어 오고 있다. 즉, 부탄은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발의 제일 목표는 삶의 질 개선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1972년 4대 국왕(Jigme Singye Wangchuck)의 즉위식 때 국민총행복(GNH, gross national happiness)이라는 삶의 질 지수를 국정지표 형태로 공표하고, 1998년 지속가능한 발전과 좋은 거버넌스(협력정치), 환경 보존, 전통문화 증진의 네 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국가개발전략을 마련하였다.

“높은 자원의 소비 수준이 실제로 높은 수준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듯이, 행복 측정은 경제적 요인만 생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행복은 주관적·객관적 자료를 포함하는 것보다 훨씬 폭넓고 인간중심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 돌지 왕디(Dorji Wangdi), 부탄 왕국 인적자원부 장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의 지배에서 독립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조금은 비현실적인 사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의 국가개발전략. 색다르고 재미난 부분들이 많다. 그 중 몇 가지를 들여다보자.



<출처 : <http://blog.daum.net/yhk1973/17951933>>

■ 국토개발

부탄은 농업이 주요 산업인 국가로 공업지대의 면적도 넓지 않고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환경 그 자체가 이 나라의 자산이다. 그래서 부탄은 국가 개발은 하되 도시의 숲을 60%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새로운 국가의 매력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나라의 특징을 보존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70% 정도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 때문에 국가 전체 면적 대비 임야의 비율이 60%를 조금 넘는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논과 밭, 임야를 통틀어 녹지 면적이 25%, 건물, 주택, 아파트 등이 들어선 대지의 면적이 36%이다. 부탄의 이러한 개발정책이 농업국가에선 매우 쉬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도심 지역의 녹지 공간 면적을 60% 이상 유지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 국가산업

부탄 정부는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산업에 있어 10년간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에 맥도날드, 버거킹과 같은 정크푸드(Jung Food) 사업은 제외이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세금을 100% 징수해야 한다. 그래서 부탄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는 맥도날드 매장을 찾아볼 수가 없다.



<출처 : <http://blog.daum.net/yhk1973/17951933>>
부탄왕국 입국사증

부탄의 환경보존 개념은 산업분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기업에게는 소득세의 15%를 감면해주고 폐기물을 관리하는 기업은 모든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관광산업

이웃나라 인도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부탄과의 국경선에 여행 금지선을 설정한 이후 부탄은 외국인 입국자가 가장 적고, 관광객의 수도 매우 적어 아직 관광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미비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광객의 수가 예전에 비해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 훼손의 정도 또한 커지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부탄은 외국인에게 입국료를 징수하여 환경보호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천연관광자원이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많이 방문하도록 장려 정책을 써야지, 입국료 징수라니..!?!?"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부탄은 외국인의 유입 인구가 많아져 국가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 국민건강복지



부탄은 국민의 건강,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완전히 규제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반입은 가능하나 200g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길거리의 공초 문제도 없고, 담배로 인한 대기 오염, 간접흡연의 피해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제적인 이거린 커는 급배적 편입이 00여명이 급속으로 보내지자 사람들은 정부가 행복의 기준을 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의 개념은 매우 민주적이지만, 실상 그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는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지속가능한 발전과 함께 국민의 행복을 최고로 추구한다는 부탄의 접근 방식은 높이 살만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복의 기준일까?

티베트, 인도, 뽕갈과 이웃하고 있으며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 부탄. 우리나라의 1/5크기이며,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고도 2,000m이상의 산악지대로 평야가 거의 없고 70만 인구의 80% 정도가 농경에 종사하고 있다. 티베트 문화권에 속해 최근까지 인도의 보호아래 있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작은 나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으니. 바로 국민행복이다.

행복정책 연구

도시경영연구부 조승현 연구위원

경제학에서 깔고 있는 인간에 대한 전제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설명력이 있는지 따져보기로 하자. 개인이 행복을 위하여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이익극대화 원칙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최후의 통첩게임(ultimatum game)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직장인, 주부, 학생 등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문제 A

누군가 10만원을 내 놓으면서 제안을 합니다. 둘 중 어느 한쪽이 10만원에 대한 배분권한을 가집니다. 만약 둘 중의 하나인 배분권자가 제시한 금액을 나머지 한 사람인 배분응답자가 받아들이면, 둘은 10만원을 배분권자가 제시한 금액대로 나누어 가집니다. 하지만 배분응답자가 거부하면 10만원을 원래의 주인이 가져갑니다. 즉, 배분 응답자가 배분권자가 제시한 금액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둘에게 돌아가는 돈은 한 푼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 A-1(지불의향 금액): 만약 당신이 배분권자라면 10만원 중에서 배분 응답자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문제 A-2(수용의향 금액): 만약 당신이 배분 응답자라면 배분권자가 최소한 얼마를 주어야지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표 1. 최후의 통첩 게임 설문〉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인간이 이익극대화 원칙에 100% 충실하다면 지불의향 금액과 수용의향 금액은 이론적으로 1원 이상이면 된다. 돈을 나누어줄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경우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99,999원이 될 수 있다. 배분 응답자는 자신에게 제시된 금액이 단 돈 1원이라도 수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 행위가 된다.

설문 결과(표 2)는 기존의 다른 조사결과와 유사하다. 기존 조사 결과에서 지불의향 금액은 전체 금액의 40% 인 4만 원에 가깝고 수용의향금액은 30%인 3만 원 정도이다. 답변에 대한 이유를 보면 두 가지 경우 모두 상대방의 감정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감정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이유는 이러했다: 상대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이 없어야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아서; 공평한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니까; 1, 2만원은 치사해 안 받겠다.

이익극대화 실행의 정도			
	표 본 수	평균값(원)	
		지불의향 금액	수용의향 금액
40~50대 남성 사무직	37	50,541	46,216
30대 주부	30	51,333	32,500
대학생 전체	82	46,232	41,110
경제과 학부생만	52	46,500	39,295

〈표 2. 최후의 통첩 게임 결과〉

이론과 현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적을수록 이익극대화 추구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사람과의 관계와 합의가 개입되는 경제 행위일수록 이익극대화 논리는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 인간을 호혜적 인간(Homo Reciprocan)이라고 한다. 호혜적 인간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나오거나 사회적 합의나 규범을 충실히 따른다면 보상을 한다. 반대로 어길 경우에는 보복을 한다. 이 경우 보상과 보복에 드는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지만 이익은 공공의 것이 된다(최정규, 2007, 이타적 인간의 출현, 뿌리와 이파리). 즉, 사회시스템이나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동기가 있다는 것이다.

* 본 내용은 인천발전연구원의 2011년 하반기 기본과제 '행복정책연구(연구 책임자 조승현의 일부압축)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1년 11월 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시민들의 소득별 시간부족과 만족도 실태 분석

인천시민들의 소득별 시간부족과 만족도 실태 분석

도시경영연구부 최성한 초빙연구원

현대인은 바쁘다. 직장일, 집안일, 자녀돌보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있어 어디에 있든지 순간순간 자기시간을 가지기 점점 힘들어진다.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맥락에서 시간은 양과 질을 다 보아야 할 것이다. 주어진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지루하거나 무의미하다면 그것은 불행일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인천시민들의 시간에 대한 물리적인 인식도(시간부족)와 주관적인 평가(생활시간만족도)를 소득맥락에서 분석하였다.

1. 분석개요

1) 자료 개요

- 자료 출처 : 통계청, 2009년 생활시간조사표에서 인천시 대상 2424명
- 표본 기초 통계

구분		규모(명)	%
성별	남성	1220	50.33
	여성	1204	49.67
월평균 소득	없음	1036	42.74
	50만원 미만	142	5.86
	50만원~100만원 미만	260	10.73
	100만원~150만원 미만	268	11.06
	150만원~200만원 미만	244	10.07
	200만원~250만원 미만	130	5.36
	250만원~300만원 미만	136	5.61
	300만원~350만원 미만	66	2.72
	350만원~400만원 미만	62	2.56
	400만원~500만원 미만	40	1.65
	500만원 이상	40	1.65

○ 설문 항목 :

〈시간부족 설문〉

평소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까?

- 예, 항상
- 예, 가끔
- 아니오, 거의
- 아니오, 전혀

〈시간만족 설문〉

당신의 시간 사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매우 만족한다
- 만족한다
- 그저 그렇다
- 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소득관련 설문〉

17 귀하의 개인 월평균 소득(세금 공제 전)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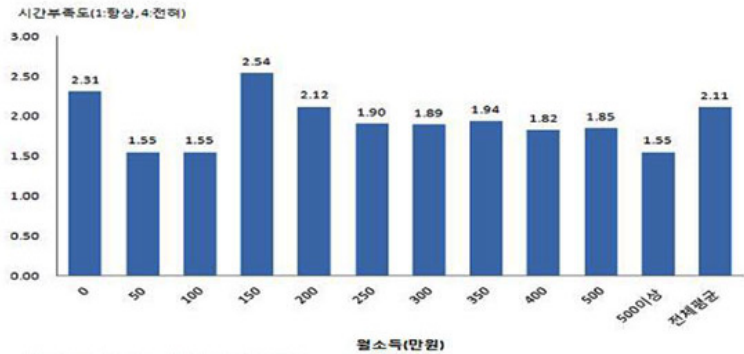
- | | |
|---------------------|----------------------|
| 1. 없음 | 2. 50만원 미만 |
| 3. 50만원 ~ 100만원 미만 | 4. 100만원 ~ 150만원 미만 |
| 5. 150만원 ~ 200만원 미만 | 6. 200만원 ~ 250만원 미만 |
| 7. 250만원 ~ 300만원 미만 | 8. 300만원 ~ 350만원 미만 |
| 9. 350만원 ~ 400만원 미만 | 10. 400만원 ~ 500만원 미만 |
| 11. 500만원 이상 | |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연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지난 1년동안(2008. 3. 31. ~ 2009. 2. 28.)의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해당 구간의 번호에 O표합니다.

2. 분석 결과

1) 시간부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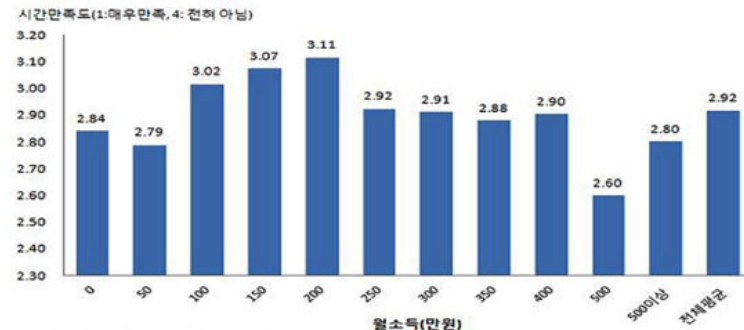
- 최저 소득계층(소득없음을 제외하고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과 최고소득 계층(500만원 이상)이 느끼는 시간 부족이 1.55수준으로 가장 심함
- 시간 부족에서 가장 자유로운 계층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상 150만원 미만으로 시간여유도가 2.54임
- 이 수준은 소득이 없는 계층의 시간여유도 2.31보다 높음
- 인천시민 전체의 시간부족도는 2.11로 가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준임



〈그림 1〉 인천시민의 소득수준별 시간부족도

2) 시간만족도

- 인천시민의 시간만족도 차이는 시간부족도에 비교할 때 소득별로 차이가 크지 않음
- 시간만족도가 가장 높은 계층은 월평균 소득이 450만 원 이상 500만원 미만으로 시간만족도가 2.60임
- 시간만족도가 가장 낮은 계층은 월평균 소득이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계층으로 시간만족도는 3.11임
- 인천시민 전체의 시간만족도는 2.92로 '그저 그렇다'고 느끼는 수준임



〈그림 2〉 인천시민의 소득수준별 시간만족도

현대인은 바쁘다. 직장일, 집안일, 자녀돌보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있어 어디에 있든 지 순간순간 자기시간을 가지기 점점 힘들어진다. 행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맥락에서 시간은 양과 질을 다 보아야 할 것이다. 주어진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지루하거나 무의미하다면 그것은 불행일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인천 시민들의 시간에 대한 물리적인 인식도(시간부족)와 주관적인 평가(생활시간만족도)를 소득맥락에서 분석하였다.